



출판계가 바라는 도서관의 도서구입과 도서선정 자료의 이용

글 | 고 경 대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kdkoh99@naver.com

1. 머리말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9~2013)'에 따르면 2009년 전국 공공도서관 63개관, 작은 도서관 119개관을 조성하고 전국 공공도서관 전체 장서 수를 2009년에 총 510만여 권을 확충하여 2013년까지 인구 1인당 장서 수를 선진국 수준인 1.6권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9)이다. 이로써 도서관 서비스를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적 핵심 지표는 단지 자료만이 목표에 맞춰 구비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적 목표의 달성은 동시에 이용자 즉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충실하게 장서를 개발했는가와 질적인 지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적 지표의 설정과 수행에 따른 목표의 달성 이면에는 1인당 장서 수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종의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경쟁 입찰과 최저가 낙찰제로 도서를 구입하는 관행을 고정화하여 낮은 질의 도서로만 채워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장서를 확충하는 목적에는 얼마나 공공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서를 채우고, 국민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질적인 확장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예산의 확보와 제도적 개선이 중요하다.

이러한 도서관의 도서구입 정책의 수립과 시행, 이를 위한 선정도서목록의 개발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량의 과다 속에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한 도서관의 서비스 핵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자료를 공공도서관에 구비할 것인가, 즉 이렇게 구비할 장서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며 그를 위한 선정목록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지침을 설정하는 것도 앞서의 양적 지표의 달성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현안일 것이다.

지식·정보·창작의 다양한 결정체들을 책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보급하는 출판산업의 생산·유통과정과, 이러한 지적 산물들을 수집, 보존,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이 서로 상승작용으로 발전해온 문화의 창달과 축적이라는 불가분의 상호의존적 관계라는 시각에서 볼 때, 그간 도서관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으로 인해 출판계가 그간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백원근, 2010). 이것은 도서관의 도서목록 수집과 관련된 납본, e-CIP, 서지정보의 표준화 등등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의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9~2013)’은 양적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확보, 이것이 도서관구입의 확장으로 이어져 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장 규모가 커질 기회가 찾아오는 한편,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에 도서관유통시장이 점점 더 위축되는 환경에 부딪친 출판계가 도서관이 상호 협업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주제들을 고민해야 하는가를 출판계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도서관의 도서구입정책과 선정도서목록에 대한 지침의 마련 등에 관한 토론 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2. 도서관 도서구입에 관한 출판계의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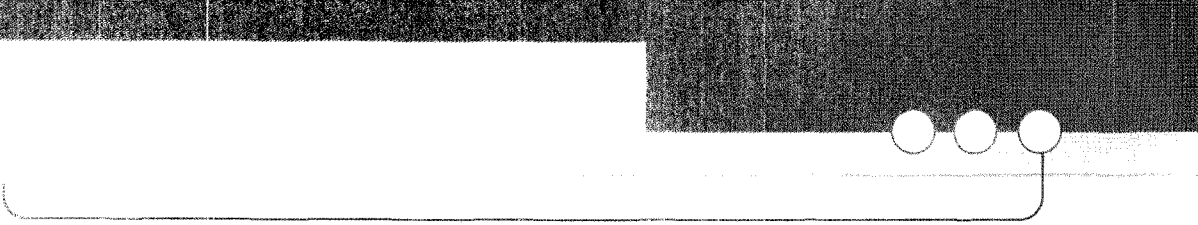
2.1 도서관의 자료구입비 확충

도서관의 도서구입에서 출판계에서는 우선적인 해결 과제로 도서구입비 총액의 확충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도 같은 입장일 것이다.

공공도서관 운영비 중 자료구입비 비중이 20~30%가 합리적이라 할 때 도서관의 현실은 권장 기준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0년 기준 공공도서관 운영비 중 자료구입비의 비율은 13.7%에 머물고 있으며, 도서구입비 총액의 관당 평균액은 약 8,060만 원이다(장택현, 2010).

또한 도서관간 양극화도 심하여 연간 1억 원 이상 도서구입비를 지출한 공공도서관이 21.6%나 되지만, 3천만 원 미만인 곳은 31.4%로 3분의 1이 넘고, 1천만 원 미만도 11.8%나 되었다(장택현, 2010).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3천만 원 미만의 도서구입비로 도서관은 쏟아져 나오는 신간을 과연 얼마나 확보하고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9~2013)’을 발표했음에도 총 8,000만 원 수준의 장서를 확보하겠다는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지역 숙원사업 중심의 예산 배정에서 도서관 자료구입비 확충은 뒷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구조이다. 제도적으로 지방예산의 일정비율을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도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또한 필요하다.

공공도서관과 대학의 도서구입비 확충은 곧 풍부한 지적 자원을 수집, 활용, 보존함으로써 이용자인 국민에게 지식 정보 이용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또한 출판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서 양질의 다양한 도서의 출간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국민, 출판계, 도서관계가 모두 유용한 선순환의 구조를 정착해나가는 근본적인 틀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출판계에서는 도서구입비의 확충을 우선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다.

2.2 도서관의 도서구입 입찰제도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고 장서구성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도서관에서의 도서구입 기준이 달라진다. 도서관 이용자에게 희망도서와 신간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도서구입의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하는 것과, 한정된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많은 종수의 장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핵심 요인으로 보는가에 따라 도서구입 입찰제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현행 공공도서관의 최저가 낙찰제나 건별 단가계약 등의 방식을 통한 도서구입은 도서관에서 책을 선정해서 구입,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짧게는 2개월에서 3개월까지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이 방식을 통한 도서구입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찾을 수 있다. 그런 반면에 자료의 신속한 제공을 통한 이용자의 확보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전혀 감안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도서관에는 신간이 아니라 구간도서가 쌓여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이용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고 도서관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악순환 과정을 낳게 할 것이다.

빠른 구입이 필요한 도서의 경우 신속한 조치로 입고하게 하고, 도서의 질을 중시하는 경우 신중하게 검토하여 구입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간계약으로 목록 없는 단가 입찰을 거쳐서 수시 구입과 정기구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제도의 개선이 공공도서관에서 과제일 것이다.

2.3 도서정가제

출판계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사실 도서를 정가대로 구입하는 환경에서는 도서유통회사의 경쟁요인은 단가 할인 경쟁으로 입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서 구비의 신속함에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의 단서조항에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구입하는 간행물은 도서정가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럼으로써 도서정가제라는 출판진흥을 위

한 법이면서도 출판진흥을 저해하는 단서조항을 둔 셈이다. 공공도서관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법질서를 지키는 것에 앞장서야 할 입장이며, 가장 큰 도서관의 공공수용자인데도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경우다.

법질서를 입법 취지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을 법에서 규정한다면 그 법은 무의미해진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입찰제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서관이 중요한 공공수요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구입에 대한 도서정가제 제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3. 사서의 도서선정 작업과 서지정보 제공시스템의 재정비

3.1 사서의 도서선정 작업

공공도서관의 책을 구입하는 업무인 수서는 장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업무이며, 좋은 장서를 구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사서이다.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가의 출발에서 사서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진 전문가로서 도서선정에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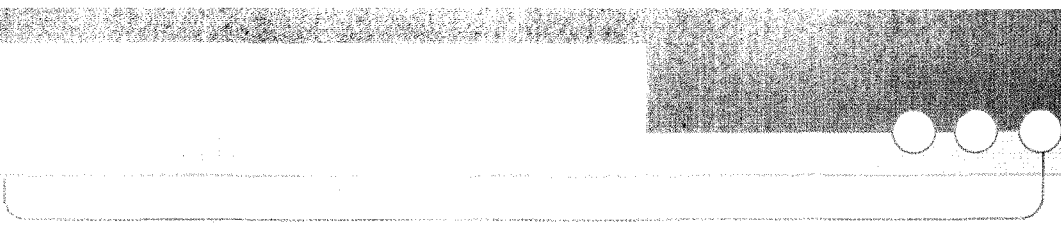
도서관의 장서관리업무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자료의 선정기준은 자료의 가치를 심의하여 수집과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일이 사서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따라서 도서선정 목록을 별도로 사서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사서가 해당 도서관의 자료 선정기준에 의거해서 도서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것은 아닐 것이다. 즉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서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목록을 제시한다는 의미는 그 도서를 모두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 도서관의 장서관리 지침에 따라 사서들은 제시된 목록을 참고로 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하라는 뜻이어야 한다.

도서관의 자료가 급증할수록 사서들에게 장서관리 업무는 실무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서의 업무 중 자료의 선정을 위한 도서 서지정보의 제시와 구입 후 서지정보의 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해주는 서지정보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도서에 관한 서지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전에 사서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서지정보제공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3.2 서지정보 시스템의 재정비

그런데 수서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들이 자료를 선정하는데 활용한 도구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보면(장택현, 2010), 공공도서관이 도서를 선정하기 위해 주로 참고한 도구로 각종 추천도서목록(20.7%), 이용자의 회



망도서목록(19.8%),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 목록(19.4%), 신문잡지 등의 서평(15.1%), 권위 있는 문학/학술상 정보(13.4%)의 순으로 나타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e-CIP나 <납본주보>의 이용률(0.9%)은 거의 없었다.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야말로 출판계와 도서관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설정할 수 있다. 현행의 서지정보 등록 시스템에 의하면 출판사는 신간을 출간하기 위해 ISBN을 부여할 때 서지정보를 입력하고, e-CIP에 서지정보 등록, 납본을 위한 서류 작성, 언론사 보도자료 작성, 주요 인터넷 서점에 신간 정보 등록 출판유통진흥원에 서지정보 입력 등 동일한 도서의 서지정보를 이렇게 각각 다른 양식에 맞춰 입력해야 하는, 반복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러한 출판사의 서지정보 등록과정에서 서점이나 언론사를 위한 신간 정보 자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서가 출간되자마자 곧바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그다지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e-CIP나,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는 납본 신고 등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출판사 입장에서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e-CIP, 납본 신고 등에 대해서 출판사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탓할 것이 아니라, 출판사 입장에서 상세한 도서의 서지정보를 한 곳에 입력하면, 도서관, 서점, 언론사 등 서지정보를 필요로 한 부분 모두에 제공할 수 있는 서지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출판유통진흥원의 서지정보 현대화 사업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범하여 지금까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출판사 모두가 이곳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에서 문제점 파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e-CIP가 전적으로 도서관을 위한 자료제공의 차원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서지정보의 범용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니면 결국 주요 인터넷 서점에야말로 서지정보가 모두 모여 있다고 한다면 도서관도, 출판사도, 유통회사도 주요 인터넷서점의 서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지정보를 설정한다면 지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서지정보 시스템을 위한 현 상태의 모든 논의가 필요하다. 새롭게 서지정보기구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널려 있는 여러 시스템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국가서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야말로 우선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서지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구현되어 도서관에서 활용된다면 그간 신간정보를 알기 위해서 일일이 인터넷을 검색하는 수고를 덜고 차라리 우리 도서관의 장서기준에 적합한 도서의 선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사서의 주체적 판단이나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고, 장서 정리 과정에서 우리 도서관의 MARC 포맷에 인터페이스된 서지정보 제공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면서 사서들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이 장서를 활용할 수 있을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4. 도서관의 도서구입과 관련한 도서선정 목록 개발 과제

4.1 현재 출판계에서 시행되는 도서선정 사업 검토

도서관계보다는 출판산업 진흥의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 도서선정·지원사업(교양부문, 학술부문)과 대한민국학술원의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선정 사업이 있다. 지원 내용은 일정부수를 구입하여 도서관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것이 해당 분야에 출판한 다른 출판사 도서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선정된다는 점에서 운이 따라야 한다는 자조 섞인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한 출판사의 선정종수를 제한함으로써 한 분야의 전문출판사의 경우 양서임에도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원 방식이 선정된 도서를 구입하여 공공도서관에 배포하는 형식이어서 도서관의 도서선정목록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부 출판사에서는 도서의 기획단계에 도서선정작업을 통해서 출판을 지원하는 방안, 또한 도서를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입비를 공공도서관에 내려보내고 도서관이 지역 서점을 통해 선정목록의 도서를 구입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도서구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한다.

이상의 도서목록은 도서를 지원하고 홍보하는 차원에 중심을 둔 출판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정사업으로, 물론 도서관의 도서구입 목록 작성에 참조할 중요한 목록이기는 하나, 본격적인 장서개발의 목적을 가지는 도서관 사서를 위한 도서목록(Catalog for Librarian)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사서를 위한 목록에는 사서들이 원하는 분류나 물리적 형태 그리고 도서구입 선정의 근거나 이유를 제공하여 도서선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형태가 필요할 것이다.

4.2 사서를 위한 도서목록의 개발

일본의 경우 일본도서관협회 주관으로 '도서선정 사업'을 1949년부터 벌이고 있다고 한다. 분야별 전문가 50명이 유아, 초등 초·중·상급, 청소년, 대학, 성인, 전문가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실물도서를 보면서 도서관 장서용 도서를 선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신간도서의 약 15~20%가 선정도서목록에 수록되는데, 도서가 수록된 출판사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출판사에서 1종당 8,400엔을 지불하고 이 자금을 선정사무비와 간행물 게재료로 활용한다고 한다(백원근, 2011).

이 같은 도서목록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출판계와 도서관계에서 서로 협력을 통해 이루어내야 할 우선적인 과제가 아닐까 한다. '도서관 장서개발을 위한 도서목록 작성사업'은 철저하게 사서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서지정보뿐만 아니라, 각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정보와 독서진흥 활동의 성과를 바

탕으로 도서관에서 갖춰야 할 핵심 장서, 도서관 개관에 따른 기초 장서개발, 우리나라 스테디셀러 목록 개발, 출판계에 요구하는 사서를 위한 도서목록 양식의 개발 등을 수행하는 도서관 장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일명 도서관 사서를 위한 도서목록)를 출판계, 서점계, 도서관계가 힘을 합쳐 개발, 수시로 서지정보가 추가되는 도서목록의 풀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를 도서관 사서가 참고하여 도서구입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4.3 도서판매정보와 대출정보 공유에 의한 도서선정의 가능성

사서들의 자료선정에 활용한 도구 중에서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 목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19.4%). 전국의 주요 서점에서 판매된 부수의 합산으로 추출된 전체 베스트셀러 목록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서들은 참조 자료로서의 의미 이상은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영국의 닐슨(Nielson UK)이나 캐나다의 북넷캐나다(BookNet Canada)처럼 서점과 인터넷서점의 POS 시스템을 통해 모은 판매통계자료를 출판사, 서점, 도서관, 언론 등에 유·무상 제공하는 판매정보 공유 시스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매통계 정보 공유가 실현된다면 도서관 사서들은 장르별, 작가별 분야별 판매동향, 장서와 시장의 트렌드 비교, 열람실의 도서진열에 대한 의사결정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각 도서관의 대출통계정보를 제공한다면 출판사와 서점에도 기획과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국 서점의 도서판매 자료와 통계를 제공하는 도서판매통계 시스템의 개발, 더불어 도서관의 자료 대출 통계까지 출판계와 서점, 도서관계가 공유, 활용하는 구조가 된다면 출판사의 기획 개발, 서점의 판매 트렌드, 도서관의 도서목록 개발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판매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판매정보 공유에 참여할 것인가에 따라 이 사업의 성립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만약 출판유통에서 이러한 판매, 대출정보의 공유가 실현가능성이 적다면, 공공도서관에서만이라도 각각의 공공도서관의 도서 대출업무를 단순 반복적 창구업무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자관의 대출 통계와 관할 지역사회의 사회·경제·문화적 특성과 정보수요를 분석하여 도서구입 정보에 반영(윤희윤, 2009)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공공도서관 전체의 대출데이터를 수합해 각 관의 장서개발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도서관 자체의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0,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매뉴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9,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
- 백원근, 2007, 「도서관정가제의 방향과 도서관 문화」, 《도서관문화》, vol.48, no.3(2007.3).
- 백원근, 2011, 「출판계와 도서관의 공생을 위한 자료 구입」, 《국회도서관보》, May 2011.
- 윤희윤, 2009,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정론과 역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권 1호.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의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특집 공공도서관 관련 좌담, 「공공도서관의 책 구입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기획회의》 249호(2009.6.5).
- 한혜영, 2011, 「국내 대학도서관의 재정적 투자 현황」, 《국회도서관보》, May 2011.